

내수부진·인건비 상승... 광주·전남 기업 '찬바람'

중기중앙회 경기전망 하락세 전환

내수판매·경상이익 등 지표 악화
한은 지난달 경기조사 업황 부진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역 기업들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 221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2.6으로 전월(85.8) 대비 3.2p 하락했다. 지역 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 4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81.3으로 전월

(79.6) 대비 1.7p, 전년(79.0)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전남은 83.8로 전월(91.5) 대비 7.7p, 전년(85.0) 1.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83.3로 전월(90.0) 대비 6.7p, 전년(84.1) 대비 0.8p 하락했으며 비제조업은 81.6으로 전월(81.0) 대비 0.6p, 전년(79.6) 2p 올랐다.

항목별로는 수출전망을 제외한 내수판매, 경상이익 등 모든 항목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79.9로 전월(84.7) 대비 4.8p 하락했다. 경상이익과 자금사정은 각각 79.2, 76.2로 전월(80.2, 77.2) 대비 1p씩 낮아졌다. 고용수준은 91.9로 전월(92.1) 대비 소폭 나아졌다.

경기전망지수는 응답내용을 5점 척도

로 세분화하고 각 빈도에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지수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중소기업들의 주된 경영애로는 인건비, 내수부진 등으로 나타났다. 3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인건비 상승이 5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내수부진 47.5%, 고금리 33.9%, 업체간 과당경쟁·인력확보 곤란 3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달 지역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7%로 전월(73.0%) 대비 1.3%p 떨어지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광주는 70.2%로 전월(72.3%) 대비 2.1%p 하락, 전남은 전월(73.7%) 대비 0.6%p 하락한 73.1%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3월 지역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서도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했고 다음 달(4월) 전망도 68로 3월보다 4p 낮았다. 3월 전국 제조업 업황BSI는 광주·전남보다 4p 높은 71로 전월보다 1p 상승했고, 4월 전망은 73으로 전월대비 2p 낮았다.

업황 BSI는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으로 답한 업체 수가 부정으로 답한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를 뜻한다. 3월 제조업 생산BSI는 75로 전월보다 3p 하락했고, 4월 전망도 77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제조업 매출BSI는 68로 전월과 같았고 4월 매출전망BSI는 71로 전월보다 7p 상승했다. 제조업 자금사정 BSI는 94로 전월보다 1p 하락했고 4월

전망은 97로 전월보다 1p 높았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21.5%), 불확실한 경제 상황(18.2%), 원자재 가격상승(15.2%), 수출 부진(11.35%), 인력난·인건비 상승(10.3%) 순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3월 비제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보다 5p 상승했지만 4월 전망은 66으로 지난달과 같았다. 비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인력난·인건비 상승(23.4%), 내수부진(18.3%), 불확실한 경제 상황(11.5%), 자금부족(10.4%), 경쟁 심화(9.9%) 순 등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지역 종사자수 5인 이상 사업체 58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으며, 466개 업체(제조업 219개·비제조업 247개)가 응답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신세계가 오는 14일까지 최대 50% 할인 '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사진은 정기세일 참여 브랜드 '리스트'.

광주신세계 제품

광주신세계, 최대 50% 할인 '봄 정기세일'

14일까지 127개 브랜드 참여

광주신세계가 새 봄을 맞아 최대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봄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세일은 '신백 멤버스 페스타'를 테마로 오는 4월14일까지 총 127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

본관 8층 닥터하우스, 앤스티치, 리스트는 최대 50% 할인율로 만나볼 수 있으며, 지하 1층 프레쉬파인드, 더메종, 5층과 신관 지하 1층의 와릿이즌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트로시티 등 핸드백부터 슈즈미스, 폴햄, 게스진, 올리브데올리브 등 여성브랜드와 본, 레노마 등 남성 브랜드를 30% 할인가로 준비했다.

제철 식재료를 올릴 봄철 식탁에 어울리는 르크루제, 낫담 등 생활 브랜드도 최대 3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신관 지하 1층 쉐시믹스, 골 스튜디오 스포츠 브랜드와 버커루, 세컨스킨, 엘르, 게스 이너웨어 역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구두부터 핸드백, 주얼리, 선글라스까지 봄 날들이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한다.

아동 브랜드 블루독 베이비, 오르시데, 닥스키즈, 피터젠슨, 압소바, 에프와를 비롯해 인기 생활 브랜드인 알레르망, 닥스홈패션, 코지네스트 레노마홈, 포트메리

온, 오펜세, 운현궁, 코렐, 덴비까지 20% 할인해 선보인다.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는 4월7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팩토리 스토어'를 진행한다. 팩토리스토어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의 안목으로 큐레이팅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상품을 30~8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프라다, 끌로에, 매종마르지엘라, 톰브라운 등 유명 해외브랜드 25여개가 참여하며 최대 80%의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본관 1층에서 영개주얼 온앤오프스토어도 함께 열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신상품을 선보이며,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는 남성 시리즈 사계절 특집과 지고트, 케네스레이디 등 미입점 브랜드 특집도 진행돼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제 1113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1 13 20 21 32 44	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9억874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8135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7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디자인진흥원, 지역 가전기업 살리기 '총력'

디자인·브랜드 고급화 지원 8일까지 희망기업 접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이 대우위니아 사태로 인한 지역 가전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전산업 내일(future & my job)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1일 밝혔다.

가전내일 프로젝트는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역혁신프로젝트)' 일환으로 가전기업을 브랜드·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로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공동 수행한다. 사업을 통해 가전기업을 제품·브랜드, 홍보물 등 마케팅에 필요한 디자인을 지원해 판로 개척과 매출 향상을 이끌어 내 지역 가전산업의 고용위기 극복할 방침이다.

이에 디자인진흥원은 자체 제품을 보유한 광주지역 가전산업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선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 가전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

브랜드 개발 분야는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브랜드가 취약한 기업(3개사)을 대상으로 1600만원 범위에서 브랜드, 캐릭터 개발 등을 지원한다. 제품디자인 개선 지원(2개사)은 디자인이 낙후된 제품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패키지형 지원(총 15개사)은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최대 3350만원 이내에서 △브랜드 개발·개선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SNS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체 상품을 제조·판매 중이거나, 최대 3개월 이내에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광주시 소재 가전기업이어야 하며, 대우위니아 피해기업 등은 우대 가점도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수행기업)와 컨소시엄을 구성,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gdc.or.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4월8일까지 이메일(tomorrow@

gdc.or.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상품의 시장성 △실행가능성 △시장창출 계획 △기대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지원기업 가운데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2025년도 광주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등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지역 가전기업을의 요구에 맞는 브랜드, 디자인 고급화를 지원해 판로 확대와 매출·고용 증대, 고용위기 극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4일 오후 3시 광주테크노파크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대강당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수행기관과 공동으로 '202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금호타이어, 정보보안 인증 'TISAX' 획득

글로벌 정보 보안 역량 입증

금호타이어는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로부터 'TISA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 정보보안 인증)'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TISAX(티삭스)는 OE 타이어 공급사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독일자동차산업협회가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의 보안 평가기준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만든 글로벌 정보보안 인증제도다. TISAX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27001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체계 △협력업체 보안체계 △데이터 보호체계 △시제품 보호체계 등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보안성을 평가한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서울 사무소를 비롯해 용인 중앙연구소, 광주·곡성 공장, 중국 남경·장춘 공장, 미국 조지아공장 등 총 7개 사업장이 TISAX를 획득해 안정적인 보안 수준을 입증했고, 올해도 추가적으로 국내의 사업장의 인증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3년 정보보안관리팀을 신설하고, 전사보안책임자(경영기획본부장)의 총괄 하에 전사적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 투자, 시스템 고도화 등 정보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보안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나 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금호타이어는 ESG경영에 발맞춰 정보보안 조직의 구성 및 관련 인증 평가 등을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명가 금호타이어'라는 수식어에 걸맞도록 지속적인 R&D 개발 및 기술 인증제도 등을 통해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